

분열의 옛 틀에서 원니스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

잠언4:13, 고린도후서5:17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저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성령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허락해주셔서 감람산의 축복과, 그리하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사단에게 속았던 것처럼 속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미션과 비전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분야에서 3서밋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가진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한다. 원단메시지에서 옛 틀과 새 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받고 다시 변화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전 반적인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과정에서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고린도전서 내용과는 다르게, 고린도후서는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아주 감정적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의 개인사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다.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은 우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도 세웠지만 쫓겨난 지역이 고린도였다.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류 목사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멤버가 아니었는가.’ 이야기 하시더라. 굉장한 사명자를 만나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고린도교회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중직자와 시대적인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만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역지를 에베소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보니가 고린도교회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편지는 기록되어있지 않다. 또다시 고린도교회에 문제에 발생했다는 소문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 안에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머리에 쓰는 것, 성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꾸지람으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된다.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디모데이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번에도 사도 바울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고린도교회가 두 번째로 보낸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교회로 방문하게 된다.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이다. 시험에 들면 목사님, 부모님도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지식은

뛰어난데 말은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 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비통함을 안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 12장 14절, 13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돌아간 후에 더 강한 어조로 세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 번째 편지는 왜 성경에 삽입되지 않았을까? 아마 너무나 감정이 실린 편지였을 것 같다.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디도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어려운 지역에 디도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아주 잘 했다. 사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디도는 그 현장에서 감정적인 편지를 잘 풀어서 전달했을 것이다. 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마음이 조금해져서 기다리지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드로아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루디아가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마음이 녹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적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없는 내용도 담겨있다.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한다는 내용을 쓰게 되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참 잘해야 하겠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하게 꾸짖어야겠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다독여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인 것이다. 목사님의 역할은 이 세 가지가 있다. 목회자가 그렇다.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꾸지람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왕같이 명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부분은 제사장같이 잘못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담임목사에게도, 부모님, 선생님에게도 있어야 한다. 꾸지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역할을 잘 했던 것이다.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 뒷부분은 다시 번째로 쓴 편지인데, 합해서 넣었다고도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상처입고 부족한 고린도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섯 번의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겠다.

- 1. 고린도교회성도들의 옛 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3장, ‘나’라는 울무에 묶여있던 성도들이었다. 즉,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아볼로의 말도 듣지 않았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볼로가 상처입어서 에베소에 와서는 다시 갈 마음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젊은 일꾼이었는데 상처를 크게 입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젊은 부교역자들을 잘 키우는 것이다. 전도 중에 가장 큰 전도이다. 그리고 디모데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목회자들을 심히 대적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결과 그들은 분열하고 필요 없는 교리적인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이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신앙행위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죽지 않은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2) 고린도교회에는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다. 신전과 우상숭배로 만들어진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심지어는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적하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3) 그 결과 그들이 창세기 11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분열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과, 게바과, 그리스도과로 분열되었다. 사단이 역사하면 자꾸 분열되는 이야기를 한다.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다. 어쩔 수 없는 마귀의 역사니까 회합, 용서, 이해하려는 영적 힘, 영적인 지혜가 없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는데 미래의 후대들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옳다, 틀렸다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틀리다.’ 할 때 문제가 아니고 하는 분들의 차이점을 묵상해봤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해결되는 것이 보인다. 응답받을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일꾼이 될 것이다. 대통령, 시대를 움직이는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100년 후, 1000년 후 응답이다. 안 보이는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 속에 우리는 오늘을 결정해야 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파, 방언이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파로 분열되었다. 결혼문제, 성찬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한다는 문제,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는 한 사람도 없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4) 그러나 고린도교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바울의 심한 훈계의 말씀을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 감사로 받아들이면 다 피가 되고 보약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훈계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2.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옛 틀의 울무에 묶어있던 고린도교회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또한 고린도교회를 변화시킨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겠다.

(1)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남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향기를 맡을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역할을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하시기 바란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인가. 류 목사님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주셨다. 아마 미래에는 620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웃음)

(2)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완료인 것 같다. 지금은 안됐지만 이미 새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면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속에 있거나 하면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옛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된다. 어떤 부분이 고장 났을 때 고장 난 부분을 알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고장 났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른다면 고칠 수 없다. 여러분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인정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뀌주세요.' 인정만 해도 어느 순간 거듭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3) 고린도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할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변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세계복음화 하려면 예루살렘교회, 본부교회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4)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게 된 것은 바울의 헌금 사역이 오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던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제시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고 자랑했으며, 자신들의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등 영적인 은사를 자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도 결론이 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거짓사도라고 거짓으로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바로 거짓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교회에서 왔다고 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행했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고린도교회 성도

들은 자비량으로 섬기는 바울을 무시했으며, 동시에 예루살렘교회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섬김을 요구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5) 사도 바울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함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영접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고 불순종하는 교인들은 영접은 되어 있는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CVDIP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2. Vision, 비전이다. 237세계복음화의 비전은 분열의 흑암이 꺾이고 모든 성도와 교회가 원니스 되는 응답을 받을 때 성취될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꾸지람과 훈계도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싫어. 왜 그래.' 생각한다면 절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이 말을 잘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잘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단메시지를 하나님이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칭찬 들을 부분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현상으로 나갔을 때는 칭찬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칠 것이다. 살아남기를 바란다.(웃음)
4. Image, 이미지이다. 이를 놓고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바라던 그 모습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미지를 기도 속에서 그리기를 바란다. 세계복음화의 이미지, 후대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서 요셉,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이미지, 모든 부분의 서밋들을 움직이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섯 개의 편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말을 안 듣고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게 다섯 번이 아니라 50번, 500번이라도 변화될 때까지 개인과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실천을 해야겠다. 어떠한 훈계와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니스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